

#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우승 향해 '구슬땀'

설날장사씨름대회 단체전·개인전 석권 목표로 훈련에 매진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 강화·시설 개보수 훈련환경 개선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1년 창단 이후 여자씨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구례군청 씨름단은 2021년에도 산악훈련, 기술훈련 등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신축년 모든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매화급 선재팀, 국화급 이세미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새롭게 영입하여 팀내 경쟁을 통해 우수선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전반적으로 젊고 강해진 선수단으로 훈련장에도 활력이 돌고 있다.

지난해는 기존 씨름 훈련장에 난방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여 선수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전지훈련팀 유지를 위한 전천후씨름장 1등을 신축하는 등 씨름의 메카로서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또한 후계양성을 위해 관내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씨름교실'을 운영하여 여자씨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구례군청 씨름단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회분위기를 우리나라 전통스포츠인 씨름경기에서 박진감 넘치며 화려한 기술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재미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연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청 씨름단이 여자씨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양성 및 환경개선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멋진 경기를 통해 전국민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여자씨름의 발상지로서 2011년 전국 최초로 여자씨름단인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을 창단하여 현재 김승환 감독을 포함 선수단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3년째 '구례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여자씨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여자핸드볼 강경민 2년 연속 MVP 수상 한 시즌 최다득점

## 양현중, 관심 구단 나타나...MLB 신분조회 요청



한·미 프로야구 협정 따라 영입시 신분 조회 거쳐야

메이저리구를 향한 양현중(33)의 꿈이 이뤄질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5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양현중 신분조회 요청을 받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

다. 한·미 프로야구 협정에 따라 상대 리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건 양현중을 원하는 구단이 나타났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양현중은 2007년 2차 1라운드로 프로에 입단했을 때부터 줄곧 KIA 유니폼을 입었다. 2017년 첫 번째 FA 자격을 얻은 뒤에는 KIA에 잔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꿈의 무대'를 향한 의지를 놓지 않았다.

지난달 말 KIA와 협상을 종료하고 미국 무대 진출에 대한 확실한 뜻을 드러냈다.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 아닌 마이너리그 경쟁도 받아들일겠다는 각오다. 신분조회가 있었던 만큼 양현중의 빅리그 계약에도 진전이 생길 수 있다. 양현중은 KBO리그에서 통산 425경기 147승95패9홀드 평균자책점 3.83의 성적을 남겼다. 뉴스

여자 실업 핸드볼의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이 SK핸드볼 코리아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과 함께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했다. 강경민은 8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경남개발공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광주도시공사의 29-28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까지 206골을 기록한 강경민은 2013년 장소희(당시 SK)가 세운 한 시즌 최다 185골을 경신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된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다. 광주도시공사는 4위에 올라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정규리그 3위 SK 슈가글라이더스와 오는 19일 단판 승부를 벌인다. 김민정 기자

## '배팅볼 투수 변신' 김태균, 후배들 위해 팔 걷었다

지난해 은퇴 후 한화 스페셜 어시스턴트 맡아



김태균 한화 스페셜 어시스턴트가 8일 스프링캠프에서 배팅볼을 던지고 있다.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김태균(39)이 후배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태균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올해도 한화의 스프링캠프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위치는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시즌 준비에 한창이던 베테랑 선수였지만 이제는 '스페셜 어시스턴트'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정민철 한화 단장을 보좌하면서 주요 전력 회의에도 참석해 구단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이다. 지

난 6일 한화 캠프가 진행되는 경남 거제에 합류한 그는 선수단에 각종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배팅볼 투수로 나서기도 했다. 김태균은 8일 정규 훈련을 마친 타자 노수광, 최재훈, 정은원, 노시환에게 엑스트라 훈련을 깜짝 제안했다. 후배들은 레전드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에 흔쾌히 응했다. 김태균은 100구 이상을 던지며 땀을 쏟았다. '레전드'의 배팅볼에 노수광과 최재훈, 정은원, 노시환은 라이브 배팅을 소화했다. 훈련은 30분 이상 진행됐다. 김태균은 "열심히 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던지고 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태균은 한화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다. 현역 시절 우타자 최초 300홈런·2000안타 등의 굵직한 기록을 남겼지만 팀을 정상에 올려놓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물러났다. 비록 유니폼은 벗었지만 팀이 보다 강해질지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뉴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하게 된 김하성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컨스텐호텔에서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에이스펙코퍼레이션 제공)

## 김하성의 우승 갈증, 본고장 미국서 푼다

프로 입단 후 한번도 정상 못 서...샌디에이고, 우승 후보 평가

프로 2년 차이던 2015년 팀의 주전 유격수로 올라선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이후 큰 실패 없이 순항했다. 2016시즌엔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고,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지난 시즌 중반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의 에디슨 러셀에게 잠시 유격수 자리를 내줬지만 이내 실력으로 자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2020시즌을 끝낸 뒤 포스팅을 통해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에 계약하며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을 이뤘다. 그런 그도 아직 풀지 못한 갈증이 있다. 프로 입단 후 한 번도 서지 못한 정상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는 2014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2차 3라운드로 입단했다. 키움은 꾸준한 강팀으로 평가받았지만 몇 번이나 우승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2019년에도 한국시리즈에서 두산 베어스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루지 못한 우승에 대한 꿈을 안고 이제는 메이저리그로 간다. 김하성이 합류한 샌디에이고는 우승 후보로 평가 받는다. 특히 이번 겨울 김하성을 비롯해 다르빗슈 유와 블레이크 스넬을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전력을 크게 끌어 올렸다. 샌디에이고의 '계산'도 김하성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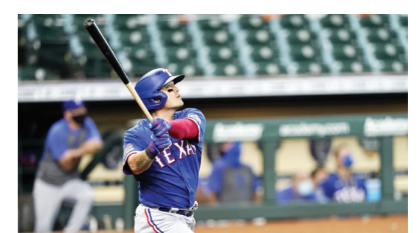
음 사로잡았다. 김하성은 "(계약 전) 샌디에이고 구단과 zoom을 통해 대화했을 때 '우리 팀은 향후 몇 년 안에 우승할 계획이고, 그런 전력을 갖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나에게도 와닿았다. 한국에서는 어렵게 못 했지만, 우승이라는 갈증이 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내가 가는 팀이 우승권 전력이란 것에 대해 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상을 보고 가는 팀이 김하성과 계약에 공을 들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김하성은 "(영입 과정에서) 샌디에이고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세부적인 조건들도 제시해줬다"고 설명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의 일원으로서 마음도 단단히 먹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면 팀에 조금이나마 더욱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메이저리그를 마음 속에 품고 뛰었던 김하성은 빅리그 선수로 성장했다. 이제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뛰며 또 다른 도약을 노린다. 김하성은 "스포츠 선수로서 1등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다. 팀이 전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

## KBO, 다음달 20일부터 시범경기...팀당 10경기

KBO(총재 정지택)는 9일 2021 KBO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 시범경기는 오는 3월20일부터 30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편성됐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잠실(KT-두산), 사직(키움-롯데), 대구(KIA-삼성), 창원(SK-NC), 대전(LG-한화) 등 5개 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고척 구장과 문학·광주(3월20일~23일)를 제외하고, 구단 별 이동거리를 고려해 스프링캠프 기간 중 연습경기를 가진 구단 간 대진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됐다. 시범경기는 전 경기 오후 1시에 개시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 "추신수, 시애틀에 필요한 선수" 美 매체

메이저리그(MLB)의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추신수(39)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디에슬레틱은 9일(한국시간) 시애틀이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추신수를 언급했다. 매체는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0.274의 타율을 기록했다. 좌타자로 경쟁력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한 후 "시애틀은 우투수를 상대할 때 추신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명타자는 물론 좌투수와 우투수를 맡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임대 복귀 김승대·최영준 "올해는 전복에 이름 남겨야죠"

강원에서 돌아온 김승대 "두 자릿수 득점 목표" 포항에서 복귀한 최영준 "손준호 공백 메울 것"



임대를 마치고 복귀한 김승대와 최영준. (사진=전북 현대 제공)

임대 생활을 마치고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에 돌아온 동갑내기 김승대(30)와 최영준(30)이 2021시즌을 자신들의 해로 만들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새 시즌 준비가 한창인 8일 전라북도 완주군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두 선수는 어느 해보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전북의 녹색 유니폼을 다시 입은 공격수 김승대는 "결혼도 했고 책임감도 생겼다. 전북에 와서 아쉬움만 남기고 임대를 갔다가 왔는데, 이제는 전북

에서 김승대란 이름을 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도 "새로운 팀에 온 느낌이다. 올해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상식)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부분이 커 자신감이 든다. 저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대와 최영준은 2019년 전북 유니폼을 입고 큰 기대를 모았으나, 팀내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각각 강원 FC와 포항 스틸러스로 임대돼 한동안 전주성을 떠났다. 김승대는 "전북에서 인정받고 1년의 공백을 메우려면, 공격 포인트 등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넣는 게 목표다. 감독님께서 공격진이 40골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만 잘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K리그1 MVP를 거머쥐고 중국 무대로 떠난 손준호(산둥루닝)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최영준은 "(손)준호가 워낙 잘해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같이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100%를 다 메울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